

##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서약: 선물과 약속

*펠리체 칸젤로시 OFM Cap*

### I. 서약, 성령의 선물

재속형제회의 프란치스코 삶에 불림 받은 형제자매들은 특정한 축하식에서 재속회의 예식절차에 따라 서약을 한다.

이 서약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예식은 서약한 형제자매들의 정체성의 기초를 이루는 순간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행위에 응답하여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이 약속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공약의 결과는 사전의 공약 즉, 사람에게 하신 **하느님의 공약**에서 유래한다.

서약 예식은 이모든 것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행위**이며 **구원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원이 믿는 이들에게 이르는 순간이다:

- 1.그들에게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게 하며,
- 2.그들에게 은총의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 그들이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서 특정한 사명을 위임받게 한다.

전례행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하느님 사랑의 강력한 힘을 체험했을 때,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다.

한편, 예식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반영한다.

전례는 사실 항상 **신앙고백**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즉, 예절행위 안에서, 교회는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실현되는 구원의 신비에 대한 교회의 진정한 믿음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 1. 서약의 은총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서약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원을 새롭게 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서약 예절).

하느님 왕국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왕국을 위하여 봉헌하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다.

서약은 **은총**이고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께서 재속 프란치스코 성소의 원천(회헌 11조)일 뿐만 아니라, 이 형제자매들은 각자 재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므로(회칙 2),

서약 또한 같은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절서의 “기본적 성격과 그 적용”에 계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예식은 *성령의 선물을 조화롭게 보여주고 복음적 생활에 대한 계속 프란치스코회의 고유한 약속을 드러내야 한다*고 되어있다. (예절서 7항 참조).

우선 성령의 선물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복음적 생활이 언급된다. 왜냐하면 복음적 생활은 성령의 은총의 영감 없이는 생각할 수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때문에 서약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복음적 삶을 살 것을 천명한다:

주님, 간구하오니 여기 모인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복음적 생활의 서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소서 (서약예절 30).

## 2. 서약: 교회의 행위

서약은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나는 점인 거룩한 인간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통해 항상 활동하시므로,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거하시고 교회를 통해 활동하시므로, 서약은 **동시에 예수님의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몸 전체인 교회의 행위**이다. 즉, 예수님의 지체의 행위이다.

서약을 *교회의 장엄한 행위*라고 정의하는 회헌의 표현은 의미가 깊다(42,1) 그것을 *공적이고 교회적인 사실*로 정의하는 예절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절서. n 13). 서약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건 또는 주님의 오심 또는 구원의 시간(*Kairos*)이다.

## 3. 서약과 형제회

서약은 **성격상 교회의 사실** 즉, 예수님과 교회의 행위라는 진리를 견지하며,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은 누가 구체적으로 서약을 하는 주체인가 또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행위가 나타나는가? 이다.

교회는 예식을 사람들과 형제자매 공동체 즉 **단위 재속 형제회**로 구성된 특별한 전례적 회합으로 생각한다. *지역 재속 형제회는 서약에서 기본적으로 교회의 현존과 행위를 가시화한다*. 따라서 서약은 **성질상 공적인 교회의 행위**이므로 *형제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해야 한다* (예절서 서언 13).

이와 같은 지침의 궁극적인 이유는 단위 형제회의 현실에서 발견된다: 단위 형제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가 된다*(회칙 22; 예절서 II 29 d).

단위 형제회는 진정한 교회의 다락방이어야 한다. 그래서 재속회원은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영적 일치 안에서 형제회에 모여 기도와 감사 행위로써 그리고 새로운 생활의 서약을 갱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전하신 구원의 신비에 참여한다 (예절서 서문 3).

이런 이유 때문에 서약은 형제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서약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형제회에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심으로써 주시는 선물이므로 형제회 회원들은 서약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인다.

그 선물에 감사하며, 형제회는 서약자의 기도에 합심하여 참여함으로써 성령께서 당신이 시작한 사업의 완성을 가져오도록 한다.

예절서는 복음적 삶을 살겠다는 서약 또는 약속에 수반되는 형제회와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서약을 함으로써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의 회원이 된다. 이는 가족 즉, 같은 영적 가족에 속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결과와 더불어 활력을 주는 프란치스코 가족이 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서약은 상호적 태도, 감정, 관계, 의무, 권한 등을 정한다.

예절서 서문(n 14)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서약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과 형제회의 도움을 받는다는 청원자의 신뢰심을 포함한다고 한다. 진정으로 청원자는 교회가 인가한 규칙으로 자기가 인도받고 도움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많은 형제들과 더불어 복음적 생활의 여정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그들에게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전체 교회의 세포인 단위 형제회에 입적하여 전체 교회의 쇄신에 이바지 한다.

예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성프란치스코의 의도대로 상호적 관계로 구성된 **형제회의 전례적 기초**,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속하는 **전례적 기초**

이 때문에 서약 예절서에 다음과 같은 청원을 발견한다: 성령의 은총을 받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과 성프란치스코의 전구와 **형제애적 친교**에 힘입어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절서 II 31).

서약을 받는 회장은 같은 뜻을 밝힌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형제자매를 받아들입니다. **형제자매가 정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예절서 II 32).

위에 인용한 본문에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서약의 두 가지의 **형제애적 가치**가 대두된다.

1. 서약은 **형제회에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다** (청원자 측). 서약에서 형제자매들과의 약속이 형성되며 이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느님과의 종신적인 의무가 확립되는 서약의 거룩한 결합(**회칙 2: 회헌**

42,2 참조)에는 여러 가지 형제애적 측면이 있는데, 하느님과 맹세한 약속에 입각하여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삶에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전례적 기초로써, **서약은 단위 형제회와의 결합을, 그를 통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와의 결합을 결정한다.** 따라서 서약의 서류가 필요하긴 하지만, 서약 예식에서 얻어지는 실체는 등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합의 개념과 실체는 그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 몸의 일부가 되고, 단일 유기체와 합병되어, 단일 실체를 만든다는 것을 가리킨다. 결합은 여러 실체가 흡수 동화 과정을 거쳐서 단일 실체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를 다른 하나에 더하는 것(1+1)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청원자가 형제회로 확장하고 형제회가 청원자에게 확장하여 한 생명체가 더 크고 더 완전하게 되게 한다.

그래서 회장은 입회예절 끝에 새로운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의 참여와 나눔으로써 형제회가 풍요롭게 됩니다(예절서 I, 16)*

따라서 서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본성이 영적이고 교회적이다. 청원자가 결합한 단위 공동체는 전체 형제회의 기초 단위이며 교회의 가시적인 표지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회칙 22; 회헌 47,1 참조).

#### . 서약식 운영

교회-형제회 예식에는 특정 표현이 발견되는데, 이는 전례적 회합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직책에서 나타난다.

#### 4.1. 청원자

복음적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서약을 하는 **청원자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행위가 표현된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다.

따라서 **서약은 세례의 덕으로 사제적 몸인 교회에 이미 결합하고, 사제이며 예언자이며 왕이신 예수님과 일치한 사람에게 적절한 사제적 행위이다.**

청원자는 **견진을** 받았거나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서약은 사제적 행위이다. 즉, 그는 견진에서 성령의 선물을 새롭게 받아서, 성체를 모시고 성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사제가 하느님을 흠송하는 자세로 삶을 영위하며, 결국 **서약의 사제적 행위**를 수행한다.

#### 4.2 형제회의 운영

**교회의 행위**는 형제회의 회장의 **참여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이는 회헌과 예절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서약은 교회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규범에 따라 단위 형제회의 회장이나 그의 대리자가 받아들인다. 예식은 예절서의 지시대로 수행할 것이다 (회헌 42,3).

교회는 사제와 형제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통해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생활과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의 서약을 받아 들인다 (예절서, 서문, 9).

교회는 사제와 형제회와 회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통해 활동한다. 예절서에는 다음의 기술에서 형제회의 회장과 주례 사제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정의한다:

회장이 교회와 형제회의 이름으로 복음적생활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인다. 사제는 교회와 프란치스코 가족의 증인으로서 이 예절을 주례한다 (예절서, 서언 16).

약예식에서 형제회의 회장은 참되고 고유한 전례적 예식을 수행하며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 그는 교회의 현존과 행위를 가시화하고 교회와 형제회는 회장을 통해서 서약을 받는다.

#### 4.3 사제

예식을 주례하는 사제도 교회와 형제회의 증인으로 정의된다 (예절서 서언 17).

그의 증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법적인 범주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약의 행위 또는 예식은 성사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제의 증거는 법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사적이며 거룩한 증거이다.

분명, 서약예식에서 사제의 역할은 예식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결정적인 사건을 기해 교회는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왔다. 전례적이고 성사적인 행위 안에, 자녀의 운명을 걱정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본성이 눈에 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전의 부모에게, 견진 청원자에게, 서품전의 청원자에게, 결혼동의 전의 남녀에게, 수도서원 또는 정결서원 전의 청원자에게 교회는 심사와 질문을 하게 된다.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의 서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사제의 직분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를 통하여 청원자가 서약의 의미에 관해,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청원자의 의도와 열망을 재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교회의 행위로서,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에서의 서약은 교회에 의해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이 확인도 사제에 속하며, 사제는 청원자가 서약 예절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러분의 서약을 교회의 이름으로 견고케 합니다(예절서 II 33).

결과적으로 서약식에서 사제는:

교회의 현존과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자,

청원자의 적합성을 교회에 확인하는 *보증자*,  
약속을 교회의 이름으로 확인하는 *승인자*이다.

## 5. 서약식 안의 성령의 선물

사제의 역할이 이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특별히 **전례행위에 적절한 성화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서약식까지도 세상에 살면서 성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성화에 맞도록 되어있다.** 성화는 항상 아버지의 일이며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재를 통하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과 교회의 중재는 특히 사제의 행위 안에 드러난다. 왜냐하면 사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서약예절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교회는 사제와 형제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통해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생활과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의 서약을 받아들인다. *교회는* 공적 기도로 그들을 위해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을 구하고, *그들에게 강복을 내리며, 그들의 서약을 성체성사와 결합시킨다* (서언 9).

예절서의 이 기술에서 이끌어내는 요소들은 서약식에서의 교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면의 이해에 진실로 근본적이다. 본문은 서약자가 교회로부터 확인받을 필요가 있음을 다시 주장하고, 동시에 교회가 기도하고 청원하기 위해 서약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교회는 청원자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하고 무엇보다도 **서약자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준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의 전례적 행위 안에 우리는 **성령을 청한다.**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에서와 같이, 수도회의 서약에서와 같이, 동정녀들의 봉헌 등에서처럼 성령을 청한다. **그래서 서약식은 프란치스코 복음적 삶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득 내리시도록 청하는, 교회가 드리는 청원기도의 힘으로, 성령청원기도로 이루어진다..**

모든 전례적 예식에서, 그래서 서약식에서도 청원에 따라 성령께서 오셔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서약이 실질적인 성령 강림인 오순절과 같은 이유이다.** 성령께서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복음적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변화시키신다.**

## 6. 서약과 성찬식

사제를 통하여 *교회는 약속 또는 서약을 성체 제물과 연결시킨다.*

복음적 삶을 살겠다고 약속의 예식 또는 서약을 미사 중에 거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 관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성찬식 안에서 서약을 거행하는 것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의 복음적 삶에 대한 서약의 특성인 자기봉헌의 희생적 차원을 표현한다.

형제회와 교회의 현존에서 표시되는 서약에서 사제이며 희생자인 서약자의 진정한 본성이 분명하여진다. 복음적 삶을 살기로 약속함으로써 그들은 온전히 자신을 하느님 앞에 맡기고,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희생 제단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서 올려놓는다.

이 안에서 **서약과 성찬식의 긴밀한 관계**가 명백해진다: 그 안에서, 사제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는 새로 서약한 사람의 희생이 동시에 현존하게 한다.

서약의 예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체성사에서 나오는 생명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체성사는 본질적으로 전례적이고 하느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있는 크리스천의 내적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실 서약은 즉각적인 행위, 일생에 고립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서약은 **일생을 통한 삶의 약속**이다. 서약의 행위는,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청원자를 새로운 존재론적 상황 즉, 종신적인 서약 상태로 바꾼다. 서약자는 서약식의 정신과 성찬식과의 내적 관계에 비추어 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서약과 성찬식과의 관계는 일생의 일이다. 성체성사의 리듬(성찬으로 시작하여 성찬으로 끝나는)으로 표시되는 삶은 가장 참된 삶이다. 그래서 서약식의 서두에, 형제회 회원이나 주례자는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한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받은 은혜를 성부께 되돌려 드려야겠습니다....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불림 받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러 자신을 희생 제물로 성부께 봉헌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봉헌이 **그분의 봉헌과 일치되도록** 노력합시다(서약예절).

서약의 순간에 표현된 종신봉헌은 성체 안에서 성사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찬으로부터 예수님 희생의 고귀한 뜻이 서약자의 삶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복음적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증거한다. 또한 복음적 삶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삶이 최초의 서약식의 정신에 따라 더욱 발전되도록 한다.

## 7. 세례와 서약

교회의 행위로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복음적 삶의 서약은 교회 차원의 여러 효과를 가져 온다. 회칙에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다.

회원은 세례성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6조).

회칙의 이 기본적인 기술에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는 세례와 서약의 관계이며 그로부터 재속회원과 교회와의 관계가 흘러나온다. 회헌과 예절서는 모두 이 세례와 서약의 관계를 강조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법적이고 전례적인 본문들은 세례의 본질을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머리와 가슴에 상기시킨다. 그것은 은총이며 귀중한 선물이다. 이는

- \* 봉헌하게 하고;
- \*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성사적으로 일치시키고;
- \* 하느님 백성의 교회의 살아있는 구성원으로 만든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서약은 굳은 약속과 근면함으로 세례적 은총과 봉헌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예절서 I,12). 세례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데, 이 약속은 서약 후에 재속 프란치스코인에게 일어난다. 이는 전례 행위와 구원 사건의 결과이며 이 또한 세례 성사에 활력을 준다.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이고, 서약이 새로운 세례가 아니지만, 세례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생명체에 서약을 함으로써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예절서는 *새롭게 하다, 나타내다, 실천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세례에 대한 서약의 특별한 작용을 강조한다.

### 7.1 세례의 기념

서약은 세례의 봉헌과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을 세례의 기념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기념이란 용어는 과거의 무엇을 기억하는 일반적으로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오히려 과거에서 현재로의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움직임에 의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성령의 힘에 의해 현재에도 존재하고 효력을 나타낸다. 여기에 바로 기념의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다. 이에 비추어 서약을 세례의 살아있는 기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기념하는 것은 세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고, 또한 새로운 삶의 원천인 성사가 현재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뜻한다.

### 7.2 세례의 활성화

따라서 서약은 세례성사에 새로운 생기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사실 예절서(서언, 1)는 세례의 고귀한 선물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더욱

충만하고 풍요롭게 완성해 나간다고 말한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수도자서약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공의회 이후의 문서와 매우 유사하다: 수도자의 서약은 특수 봉헌으로서 세례의 봉헌에 깊이 뿌리박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표현한다(“ 완전한 사랑“ 5).

수도자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서약은 세례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의 *충만하고 더 풍요로운 실현 또는 더 완전한 표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약이 세례를 더 결실을 맺게 하고, 더 강하게, 더 풍요롭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소명은 서약식에서 성령의 강한 힘으로 확인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존재의 충만함을 주며, 이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 건설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서약을 통해서 세례의 내재된 가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실현된다. 서약은 세례에 힘을 주고, 각인하고, 발전시키고, 서약은 새로움을 만들고, 성령을 새롭게 분출하도록 한다.

## 8.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교회와의 기본적인 관계는 세례로 성립된다. 왜냐하면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하느님의 백성으로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서약은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낳게 한다.** 다시 말해서 견진으로 새로워지고 완전하게 된 기본적인 세례의 관계는 서약으로 **더 강하고 더 긴밀하게** 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6을 보자:

회원은 세례성사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회칙 6).

예절서도 서약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이를 되풀이한다:

여러분은 세례로 하느님 백성의 지체가 되고 견진성사로 성령의 새로운 선물을 받아 굳세게 되었으니 생활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와 **더욱 굳게 결합하겠습니까?** (II, 29).

방금 인용한 본문에는, 서약이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은 세례와 견진을 받은 사람과 교회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시킨다. 그러나 본문의 강한 어조는 서약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의 교회와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낸다. 이 교회와의 관계는 일반 세례, 견진을 받은 사람들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면서 더 강하고

더 긴밀하다.

## 9. 교회 사명의 증거와 도구

문헌들은 서약 때문에 더 강해진 교회의 유대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교회의 사명을 연관시키는데 치중한다.

회원은 세례성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영감을 받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사도적 결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신뢰와 개방적인 대화로써 교황 성하와 주교들과 사제들과 *전적인 친교 안에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회칙 6)

회칙에 요약된 이 내용은 회헌과 예절서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모두 재속 프란치스코의 사명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드러낸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건설*을 지향한다.

상기 문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건설하다* 와 *건설* 의 용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맡기신 사명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전형적인 프란치스코 정신이며 프란치스코의 교회 안에서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자녀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느님 백성의 살아있는 조직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의 살아있는 조직이 세상에서 일어나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속 프란치스코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업무를 기준으로 정의될 수 없고, 그들의 존재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주된 봉사는 프란치스코이며 재속인으로서의 카리스마에 충실하고, 참되고 열린 **형제애**를 증거하는 것이다.

회원은 넘쳐흐르는 사명감으로 *교회 안에서 신뢰받도록 할 것이다* (회헌 100,3).

결과적으로 회칙, 회헌, 그리고 예절서는 회원이 교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살 필요성을 강조한다. 회원은 서약을 통하여 교회와 약속한 더 강하고 더 친밀한 결합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결합*이며 교회의 근본 요소이다. 이들은 **일상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회원은 우선 세례로써 그리고 서약으로써 증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는데, 이 의무는 정확하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에서 나온다.

회칙과 회헌에서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에게 증거에 관해 계속 환기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삶의 진정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최상의 충성을 봉헌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교회와 맺어진 계명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과 형제애를 서약의 순간부터 확실한 방법으로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회칙, 회헌, 예절서에 나오는 개인적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권고는 이것이 주님 제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쁨 마음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 II. 서약의 약속

### 10. 봉헌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 예절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나 (성명, 세례명)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원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예절서 II,31).

그에 앞서서 예절서 서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복음적 생활에 대한 약속의 본질: 세례와 견진 때 한 봉헌과 약속의 갱신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함을 의미한다. 곧 서약자는 이 세상에서 봉헌의 삶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14a).

예절서에 나오는 봉헌은 하느님과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만 적용된다. 재속 프란치스칸은 전적인 자유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약은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어 하느님께서 자신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행위이다. 그 결과 정확하게 서약의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 속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느님께 맡겨지게 된다. 서약의 덕으로 그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다.

그러나 실은 “봉헌”이란 하느님께서 그를 소유하신다는 행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자신을 전적으로 바칠 수 있는 것은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께서 그는 그를 오직 당신의 소유라고

표해 놓으신다.

봉헌의 의미는 “위로 바친다” 기보다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봉헌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자신에게 부르시어 내적으로 변화시켜 초월적인 현실을 살 수 있게 하신다.

## 11.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의 의미

이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회헌, 그리고 예절서에 나오는 서약이란 용어와 복음적 삶을 살 약속이란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 말들은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서약식에서 약속할 때의 각오를 가리킨다.

이 용어들 특히 서약은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순명, 가난, 정결의 수도 서원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쓰인다. (교회법 573,1-2)

그러므로 수도생활에서 유래한 이 용어의 의미는 현재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교회적, 전례적인 의미보다 수도회의 의미에 더욱 가깝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회헌, 예절서에서 사용하는 서약이란 같은 용어는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행하는 같은 약속이다. 그러나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약속은, 평신도(기혼, 미혼자)와 재속 성직자가 순명, 가난, 정결의 서원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보통 삶을 살아가며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복음을 살겠다는 것이다.

회칙, 회헌, 예절서에 쓰인 용어와 그 용어로 표현된 실체는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규정과 모든 관련된 자료들은 언제나 약속, 지침, 서약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 왔다.

생활지침에는 거듭해서 약속, 약속하다 를 사용하고 있다.

니콜라오 회칙(Supra Montem)의 제2장의 제목에 서약이란 용어가 쓰이지만, 같은 장의 본문에는 다시 생활지침에 나오는 용어로 돌아간다. 그러나 생활지침이나 니콜라오 회칙에 나오는 약속은 참되고 적절한 서약으로 간주된다. 이는 심사, 수도복 착복, 수습기를 거쳐, 수련기를 마치고 본회에 입회하는 단계이다.

위에 언급한 수련기의 4 요소 즉, 수도복, 심사, 수련기, 서약은 1228년 이후의 생활지침에 나와 있고, 13세기의 프란치스코 회개자들의 모든 회칙에 나온다. 형제회의 청원자들이 거치는 이 과정은 프란치스코 회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 시대의 생각과 당시의 모든 수도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교회 규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약속은 수련기간을 마친 후에 형제회의 법적인 회원이 되게 하였다. 일단 회원이 되면 인가된 수도회에 들어갈 경우가 아니면 형제회를 떠날 수 없었다.

이런 규정은 당시의 모든 수도회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수도회의 회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회칙의 정신으로 사는 삶을 존중함을 뜻한다.

서약/ 약속의 생활은 종신적이며, 더 강력한 이유가 아니면 바꿀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프란치스코 3회의 초기 규정을 종합하면 회개한 형제자매들의 서약의 기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가) 하느님께 약속한 의무;

나) 삶의 양식 또는 회칙을 지키겠다는 약속;

다) 수도회의 확정적 입회.

수도자 서약에도 위와 같은 요소들이

있으므로 재속 프란치스코 회개자들의 약속이 수도자의 서약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수도회는 아니지만 회(Ordre)라는 이름은 아주 잘 어울린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공동생활이나 서원을 요구하지 않지만, 사도좌가 인가한 회칙과, 수련기, 그리고 취소할 수 없는 서약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광의의 수도회* 즉, *재속 수도회*이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프란치스코 회개자들은 평신도 또는 일반 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재속수도자**이었고 교회에 속한 신분이었다. 사실 평신도는 성직자의 반대이고, 재속인은 정규 수도자의 대응이다. 재속인은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평신도, 성직자, 또는 수도자일 수 있다. 한편 정규수도자는 수도원 또는 수녀원 또는 교회에 부속된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다. 정규수도자는 다시 수도자 또는 성직자일 수 있다.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초기회칙의 용어(*약속, 약속하다*)를 유지했으나, 점차적으로 서약(*profession*)이란 용어를 선호했다.

**회개한 형제자매들의 약속이 참되고 적절한 서약이라는 강한 확신이 초기부터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오로 6세의 회칙, 이어서 축성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 성에서 인준한 회헌, 그리고 성사정신성에서 인준한 예절서에 더 강하고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그래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은 하느님과 교회와 함께 행하는 **장엄한 수도자적** 약속의 품위를 지니고 있어서 수도회의 서약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두 서약이 내용 면에서 다를지라도, 그것은 다양한 은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데에 기인한다.

한편, **교회**는 수세기 동안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프란치스코 3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인준함으로써, **서약의 가치에 관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정신을 항상 인정하고 입증하였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평신도의 회로서, 모든 수도회와 똑같이, 통합적인 크리스천 완덕의 학교를 이루는 참된 회이다. 이 **참된 회 안에서 참된 서약이** 행해진다. 그 서약은 엄밀히 말해서 수도회의 서약과 내용이 다르지만 존엄성은 똑같다.

## 12.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성 프란치스코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약은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하는 약속이다. 즉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에 담겨있다.

그래서 재속 프란치스칸이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회칙 2; 회헌 1,3; 8,1) 복음적 삶을**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속 프란치스칸의 삶은 회개의 초기부터 복음을 그의 삶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감과 체험으로 비춰진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의 의도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프란치스칸의 소명은 **복음적** 소명이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의 체험이 복음을 대체하지 않고, 복음이 프란치스코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칸은 성 프란치스코에게 배우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다른 규칙이나 삶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소명의 기원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중재가 있다.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중재는 교회가 인가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으로 이어진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은 성좌가 인가했으므로 교회의 것이며 교회는 권위로써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이 회칙을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정신이며 삶인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재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서약하는 사람들(회칙 제2조)에게는 프란치스코와 회칙과 회헌을 참고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며 규범이다.

말할 것도 없이, 프란치스칸의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한 소명은 자신의 전존재를 사로잡는 소명이고, 자신의 존재의 근본적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복음적 프란치스칸의 삶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외의 다른 어떠한 사람으로도 여길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복음에 기초를 둔 **회칙과 회헌**은 재속 프란치스칸의 삶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속 프란치스칸의 삶**이다.

사실 우리는 회칙보다 삶을 얘기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생각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에게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수도자이든 재속인이든 그의 동료나 제자들을 위해서 회칙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그의 글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회칙보다는 삶에 대해 더 얘기한다(이것이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노첸트 교황께 승인을 요청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이다: 인준 받지 않은 회칙).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가 회칙에 대해 말할 때는 자주 회칙과 삶을 함께 얘기한다(인준 받은 회칙). 성 프란치스코에게 회칙은 오직 글자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고 지켜야 할 복음이다. 이로부터 다음의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의 조항이 나온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과 삶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회칙 제4조**).

결론적으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서약의 목적은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르는 복음을 살고자 하는 약속이며 철저하고, 빛으로 가득 찬 기쁨에 넘친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삶은 성인이 복음에 귀 기울이고 복음대로 살기로 전념한 그런 삶이다.

### 13. 제자의 복음적 삶 또는 예수님 따르기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예절서 서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많은 기혼자와 독신 남녀들 그 리고 재속 사제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적 완덕의 생활을 추구함에 있어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모범삼아

그의 카리스마에 참여하여 이를 세상에서 실현하고자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르기 위해 형제회 안에서 복음

을 살기로 약속하여 세례의 고귀한 선물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더욱 충만하고 풍요롭게 완성해 나간다(서언, 1).

예절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복음적 삶을 결합시킨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키는 목적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이다.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진정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체험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였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에 인도되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맞아들인다.

프란치스코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여러 세기 앞서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성경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인식했다. 그 말씀에서 프란치스코는 육화하신 **말씀**을 보았다. 그 육화하신 **말씀**은 그에게 하느님의 뜻과 진리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프란치스코에게 복음의 진리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야 할 살아있는 인격체이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삶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형제회를 세울 때 절대적으로 종전의 어떠한 규칙도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신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였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랐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의,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선, 성경의 영, 착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표현은 프란치스코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그는 베드로 1서를 보고 베드로 성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긴급하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난 받으시고 모범을 남기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모름지기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당하게 수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자리에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프란치스코에게도, 주님의 지상 삶의 사건과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복음의 틀에 맞춰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신 하느님의 행위에 참여하고 따르는 것이다*.

#### 14.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

앞의 논의에 비추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에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서약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이다.

회칙은 또한 놀라운 그리스도론적 선언을 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도달하는 진리이며, 삶의 충만함을 주려고 온 생명이다 (회칙 4조)라고 확인한다.

회칙 맨 처음에 자리한 이 훌륭한 말씀은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을 깨우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눈을 떴지 않으며 아버지 사랑의 선물에 대해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관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그들을 복돋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는 프란치스코처럼, 그리스도인의 제자신분은 그분께 대한 사랑에서 태어난다. 그 사랑은 아주 온전하고 근본적이어서 그들이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일치하게 하여 사랑하는 그분에게 맞춰진다. 회칙 10조는 이러한 일생의 목표를 담고 있다 (회칙 10조):

회원은 성부께 당신의 의지를 의탁하신 예수님의 구원자적 순종을 본받아,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은 곤란과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결론으로,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살겠다는 서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아주 깊이,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복음이 선언한 약속을 얻도록 자신을 여는 것이다.

## 15. 최초 회개자의 정체성

복음 메시지는 회개로의 초대와 함께 시작한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 1,15). 회개는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적 삶의 본질이다. 그래서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초기의 은사에 힘입어 복음을 살 것을 서약하며 회개자의 삶을 살기로 약속한다. 우리가 이미 강조했다듯이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 그리고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복음적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한다(회칙 2; 회헌 1,3; 8,1).

그러나 생활지침 (*Memoriale Propositi*, 1221)과 니콜라오 4세와 레오 13세 교황 성하게서 인준하신 회칙에 이어 만들어진 현 회칙은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변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 교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게 한다(회칙 3).

회칙 3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현 회칙과 이전의 회칙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회칙은 프란치스코가 제시한 회개의 새로운 회칙에 표현된 최초의 영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 백 년에 걸친 재속 프란치스칸 운동의 풍요로운 역사의 일부이다. 이 새로운 회칙들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회개자들 또한 완덕에 이르게 된 것은 정확하게 이 새로운 회칙들의 덕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Julian of Spire ).

이 때문에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회개한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프란치스코의 권고의 제목으로 새로운 회칙에 머리말로 삽입되었고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온전한 전통과 영성의 영감의 원천으로 정당하게 여겨진다.

프란치스코는 그 편지의 두 편 모두에 집요하게 가장 당연한 것으로, 그를 따르기 원하는 평신도들에게 철저한 그리스도인 삶의 양식을 요구한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이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른 쇠신된 생활을 하도록 힘쓴다.

이 편지에서 만큼 작은 형제들, 가난한 부인들, 회개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여야 했던 프란치스칸의 삶의 양식 아주 분명하게, 넓게, 심오한 식으로 제시된 곳은 없다.

주님의 영의 이끄심으로 이제 순수하게 자연적인 인간 삶의 가치들, 복음과 산상 수훈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의 삶의 가치들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프란치스코는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육의 정신 즉, 이기적, 권위주의적,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주님의 영을 가져온다. 주님의 영은 진정한 복음에 따라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삶의 방법은 메타노이아로서 프란치스코가 뜻한대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란치스코가 이해한 회개의 원천이다. 그래서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회칙 7).*

## 16. 재속성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예절서는 세상 안에서 사는 삶의 봉헌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살려는 의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한다(서언 14 가, 라). 회칙에서도 처음부터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이 성령께 인도되어 사랑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들 자신의 재속 신분을 강조한다(회칙 2).

그래서 재속신분(재속성)과 세상은 재속 프란치스칸의 특정한 정체성과 서약에 따라오는 그들의 독특한 사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의 대등한 요소이다.

우선 재속성은 존재론적이고 사회론적인 조건을 가리킨다. 재속성은 이 세상 안에 인간으로서 그리고 남녀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재속성은 삶의 한 차원이며, 태어나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재속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재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속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재속성에도 신학적인 차원이 있다.

신학적으로, 재속성이란 출생의 상황을 자신의 성소를 정해주는 특정한 표징과 장소로 여기고, 의식적으로 들어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와 "아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속성은 인간역사 안에 하느님이 개입하시고 이 세상에 오심을 믿는 데에서 나오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세상을 인정함으로써 표현된다. 그러므로 재속성이란 태어난 사실만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쳐 봉사하려는 자유선택을 가리킨다.

이렇게 존재론적 그리고 사회론적 조건이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 그 조건이 구원을 실현하고 증거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재속 상태가 하느님께 봉헌된 상태가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구원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그분의 손에 맡겨어진 그분께 봉헌된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이다.

세상자체는 나름대로 신학적 의미를 가정한다.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 비추어보면 “세상은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온갖 현실과 함께 인류 가족 전체이다. 인류 역사의 무대인 이 세계에는 인간의 노력과 실패와 승리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가 창조주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보존된다고 믿는다.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졌으나,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쳐부수시고 해방시키신 이 세계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변혁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기쁨과 희망“ 2)

평신도로서의 그리고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존재와 활동은 세상의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 사랑의 완성을 추구하고 세상 안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의 성화를 위해 자신을 봉헌한다.

따라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고 자신을 성화해야 하는 '장소'가 된다.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함에서 존재함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나온다. 또한 그 사랑은 아드님을 세상에 보냄으로써 드러난 성부의 사랑을 완성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온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장소,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에 불구하고 아니고 정확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장소가 된다(*in saeculo et ex saeculo*).

한편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육화는 어떻게 세상 자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고, 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드러내는 신비이다.

육화는 숨겨진 비하(kenosis)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일어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부정하고, 일상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마침내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사실 세상은 제자로서의 엄격한 수덕생활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 즉, 예수님께 구원받고, 참회로 늘 정화된 사람이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새로운 사람은 인간에 거스르지 않고, 인간을 위한 봉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이다.

복음적 삶의 한 양식을 서약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고, 세상사에 복음의 진정한 영을 옮김으로써 (예절서, III. 46), 재속 프란치스칸은 세상의 성화가 인간의 성화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복팔단의 영성 없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의 빛” 31 참조).

(번역 :한국재속프란치스코회 번역위원회)

[수도생활의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 \(Perfectae Caritatis\)](#) PC

[교회헌장 \(Lumen Gentium\)](#) LM

[사목헌장 \(Gaudium et Spes\)](#) GS

CIC Can 573, 1-2 교회법 “ 모든 축성 생활회의 공통 규범“